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 등록 교우 : 조재형 성도(우즈벡 목장, 유중열 장로), 오순옥 성도(호산나 목장, 강숙여 권사), 김우남 성도(헬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3. 1월 추천도서입니다. <행복의 샘>, <안녕, 기독교>, <왕이 된 양치기> 이상 3권을 2층 예향카페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대여기간은 일주일입니다.
4. 오늘은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오후찬양예배는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주 토요일(2/1) 청소년당은 우즈베키스탄 목장(유중열 장로)에서, 다음 주일(2/2)식사당은 한나 목장(김경미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7. 2020년도 '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2월 1일(토), 2월 8일(토)에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부장 포함)은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월 26일	2월 2일	2월 9일	2월 16일
예배기도(오전)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오진석 집사	이현호 집사	
예배기도(오후)	설연휴	오승연 권사	박숙이 권사	이연미 권사	
주일식사담당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 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 목장 (신경미 권사)	호산나 목장 (강숙여 권사)	
토요일청소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 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 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 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 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사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마을 전도팀을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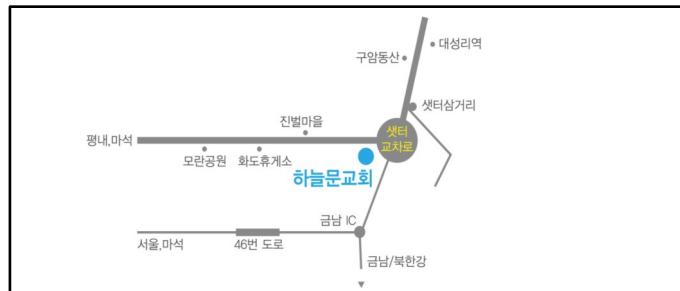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23번(주현절) 다같이
*경배찬송	27장(통 27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04장(통 404장) 다같이
대표기도	권용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요 1:5-9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한계, 뛰어넘어야 합니다’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4) 허영진 목사
롬 1:18-25 '더 나은 길'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바른 과학을 위해 쏘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현절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겨울실종

“멍 멍” 잠결에 들은 개 짖는 소리가 꿈인가 싶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화들짝 놀라 핸드폰 시계를 보았다. 새벽 세 시. 새벽기도회를 위해 일어나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한겨울 밤, 교회 본당 옷바람으로 인해 겨우 잠들었는데, 일찍 일어난 게 뭔가 속상하고 아쉽다. 이리 저리 뒤척이다 잠을 청해 보는데, 잠들기가 여간 쉽지 않다. 길 건너편 집의 개 짖는 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일지라도, 나에게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른 새벽 알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비치는 포근한 오후, 시도 때도 없이 짙어 대는 이웃집 개를 보자고 식당의자를 교회마당에다 가져다 놓고서는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겨울이 무색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와 있었다. 자리를 박차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뛰쳐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내린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 되었을 도로는 건너나 운동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일까. 건너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분명 3월 초순이나 되어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새해 들어 들려온 소식으로는, 지난 소한과 대한 사이에 있던 어느 하루, 제주는 낮 최고 기온이 23.6도까지 오르면서 1월 기록으로는 9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부지방 곳곳에는 때 이른 '봄꽃'들이 개화하고, 심지어 전국의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절기상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은 3월5일 전후인데 말이다. 전문가들은 너무 이른 경칩으로 인한 먹이사슬에 문제가 생겨 자연스런 생태계마저 파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르다’는 말은 ‘시간상 앞서 있다.’는 뜻이다. ‘미숙하다.’란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어떤 일의 알맞은 때’라는 뜻을 가진 ‘제때’라는 말과 견주어 보면 좋을 듯싶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았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다. 다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붙들고 무슨 일든 제때에 이루어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Written by 허영진